세대·장르 넘나든 불교동아리 한마당

전 세대 함께한 불교문화 향연
새로운 문화 포교의 시작 알려
본선 진출 9팀 열정 무대 펼쳐
광동중 '레디언트' 대상 수상해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2024 불교문화대전-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이 10월 19일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우수상을 수상한 봉은사 '취타대'의 공연 무대.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불교 동아리들의 재능과 열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가 주최하고 불교문화대전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2024 불교문화대전-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이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은 5회째를 맞은 불교문화대전의 일환으로 사찰과 종립학교, 불교 단체에서 추천받은 비전문 동아리들이 참가했다. 예선에는 전국의 불교문화동아리 22팀이 신청해 관심을 모았으며, 이 중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무대에서는 무용, 악기 연주, 노래,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다.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고, 관객석에서는 열띤 응원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동대부중 불교학생회 밴드부 '니르바나'의 경쾌한 연주에 이어 조계사 '향무용단'은 나라의 평안과 축복을 기원하는 부채춤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선무도 서울본원'은 움직이는 선무도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전했고, 불교문화단체 '여여청소년가야금병창단'과 '무악재 아트그룹'의 안혜경 씨는 가야금 연주와 호남살풀이춤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청계사의 '비파천인단'과 봉은사의 '취타대'는 전통악기 연주로 무대를 장식했으며, 광동중학교 댄스팀 '영웅'과 '레디언트'는 에너지 넘치는 댄스로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영예의 대상은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인 광동중 댄스팀 '레디언트'가 차지해 2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레디언트'의 김은재(14) 학생은 "불교 동아리들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불교문화와 예술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은 동대부중 밴드부 '니르바나'와 봉은사 '취타대'에게 돌아갔으며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장려상은 총 6팀에게 돌아가 각 팀이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본선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승패를 떠나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조계종 문화국장 신해 스님은 "불교 동아리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마련해 참여 팀과 관객 모두가 더욱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교문화예술단체와 불자 문화인들이 함께 즐기는 불교문화 축제 '불교문화대전'은 10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시상식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미륵사지 치미, 백제 건축미 재현하다

국립익산박물관 5주년 특별전
치미 복원 등 185건 한자리에
동원 승방지 출토 치미 완형 공개



전북 익산 미륵사지 동원 승방지에서 출토해 완형으로 복원한 치미.

국립익산박물관이 백제 최대 사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치미를 복원하며, 1300년 역사를 간직한 백제 건축의 정수를 새롭게 조명하는 특별전을 연다.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울림)은 개관 5주년을 맞아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치미-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을 내년 3월 3일까지 선보인다. 전시는 국립익산박물관의 중장기 학술조사 연구 프로젝트인 '미륵사지 재발견'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별전은 치미의 제작부터 폐기, 복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여주며 백제 시대 건축미를 집중 조명한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치미는 지붕 양 끝을 장식했던 기와로, 미륵사 대찰의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복원한 동원 승방지와 연못지 출토 치미가 최초로 공개돼 특히 주목된다. 완전한 형태로 복원된 동원 승방지 출토 치미는 높이가 143cm에 달해 백제 건축물의 예술적 정교함을 엿볼 수 있다.

전시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1부 '과학기술과 보존·수복을 통해 본 치미'에서는 치미의 내부 구조와 복원 과정을 과학기술로 분석한 내용을 다룬다. 제작 당시의 기술과 치미를 되살리기 위한 보존 처리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이 복원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2부 '형태를 빚고 문양을 담은 치미'에서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치미의 형태와 문양을 조명한다. 치미에 새겨진 용문과 연화문 등 다양한 문양을 통해 고대 백제의 예술적 감각을 감상할 수 있다.

3부 '용마루 위 장식기와, 치미'에서는 복원된 동원 승방지 출토 치미가 대형으로 전시돼 고대 백제 건축의 규모와 장식 기법을 깊이 있게 살필 수 있다.

전시 기간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성인을 위한 강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현선 기자

불광 50주년 기념 2차 학술대회 성료

10월 19일, 전법 교화 방향 모색
새로운 시대의 제3불광운동 추진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와 불광미디어가 주최한 제2차 학술대회는 10월 19일 경내 보광당에서 '새로운 시대의 전법교화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첫 발제를 맡은 실상사 한주 법인 스님은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야 반야바라밀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출가자와 재가불자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상호 협력과 적절한 비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광운동의 미래를 위해 참회기도 정진과 현대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주지 동명 스님은 광덕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제3불광운동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현선 기자

신라불교 초전지 역사·현대적 가치 조명

교불련, 10월 19일 학술대회 개최
20일엔 도리사 등 초전지 탐방도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불교의 전래를 살피고, 역사적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교불련)는 10월 19일 경북 구미 도개 행복나눔센터에서 '신라불교의 특징과 초전지 불교 자산의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학술대회는 (사)날마다좋은날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2024 신라·백제불교 자산구축 사업' 일환으로 열렸다.

첫 발제는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가 '신라시대 불교 초전의 시대적 의의'를 주제로, 국가 간 외교를 통해 전법한 고구려·백제와 달리 신라불교는 민간전래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경집 동국대 교수는 당항진에서 이뤄진 구법승 활동을 통해 신라불교의 전개 양상을 살폈다.

계미향 동국대 교수는 '신라시대 불교 전래와 교학·교단의 형성'에서 "통일신라 시기는 신라불교와 한국불교의 완성과 정립 시대라고 평가되는 만큼 교학의 수준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석길암 동국대 교수는 농경 혁명에 따른 사회구조 변동이 신라사회의 불교 수용과 체제화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고찰했다. 석 교수는 "'불교를 공인하였다'라는 규정은 사회 변동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불교는 기독교에서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의미하는 공인이라는 표현보다 체제화라는 전래과정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가 끝난 뒤 종합토론에서는 홍선기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성렬 조선대 명예교수,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이민성 중앙학연구원 연구원, 황상준 위덕대 교수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역사적 고증과 유물 발견 등을 통해 초전불교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구전과 함께 형성돼 온 불교 자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술대회에 이어 20일, 참가자들은 신라 처음 절인 도리사와 직지사를 탐방했다.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의 안내로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명상터를 둘러봤다. 김내영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창립 50주년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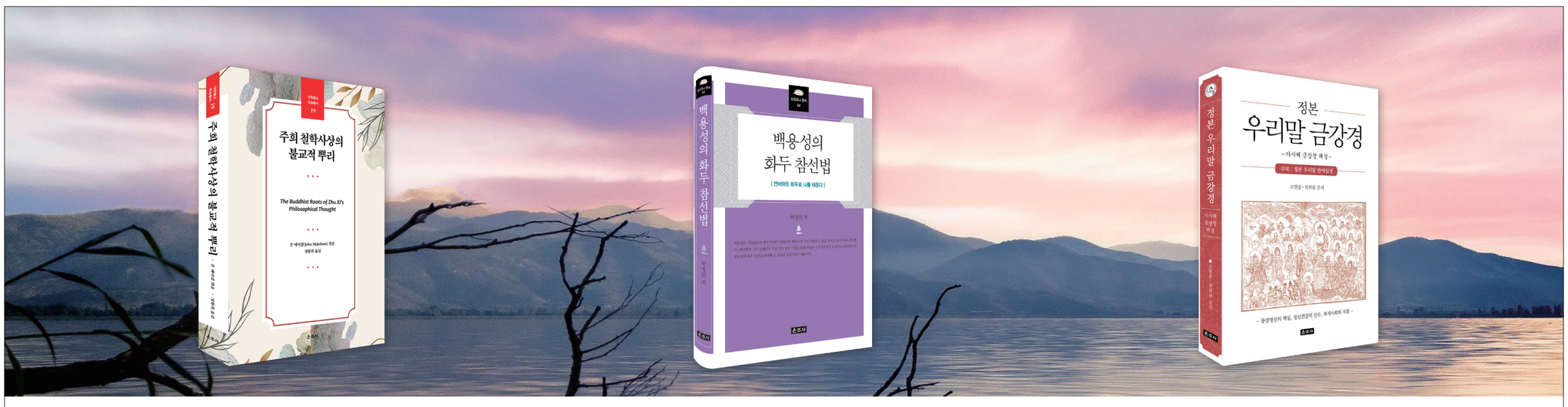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미래불교 나아가야 할 길 모색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주형)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11월 1일 오전 10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불교의 미래, 불자의 길'을 주제로 열린다.

심포지엄에는 종교, 철학, 심리학, 물리학, 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불교와 현대 사회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이민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은 '지금 우리는 어떤 불교를 말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부처님 가르침과 현대 사회의 관계를 진단하며,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사성제의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를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성태용 전 건국대 철학과 교수는 '보는 눈과 걷는 발이 함께 하는 불교'를 주제로 지혜와 실천의 균형을 강조하며, 양형진 고려대 디스플레이 반도체물리학부 명예교수는 '상대성 이론과 나에게 나타나는 불교'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시선에서 불교를 새롭게 해석한다. 해일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은 '팬데믹 이후 한국불교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현선 기자



유학자 주희의 사상에 대한 고찰!
주희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
중국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주희는 강하게 불교를 배척하고 비판했지만, 그의 사상 상당 부분이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힌 획기적인 연구!
존 메이컴 엮음, 정환희 역/신국판/552쪽/값 30,000원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되살리다!
백용성의 화두참선법
일제 강점기에 한국 전통불교의 중흥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용성스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선사상과 수행방법,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포교방법에 대해 조명하였다!
허정선 저/신국판/양장/268쪽/값 22,000원

가사체 금강경과 가사체 반야심경 해설!
정본 우리말 금강경
9종에 달하는 금강경 판본을 비교해 '정본 한문 금강경'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명확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사체로 만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조현춘.천희완 공저/신국판/44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